

「上古天真論」과 「四氣調神大論」의 敘事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교수
김용진*

A Study on the Narratives of the Chapters *Shanggutianzhenlun* and *Siqidiaoshendalun*

Kim Yong-jin*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Recently in the field of medical education, the study of narrative has been gaining much attention. This study examines the *Huangdineijing* in terms of narrative studies.

Methods : The chapter *Shanggutianzhenlun*, which is narratively sound in its composition, and the chapter *Siqidiaoshendalun*, whose narrative structure is simple but composed in a way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ere studied.

Results : The narrative structure of *Shanggutianzhenlun* is interrogatory with a main character, making it appropriate for narrative study. However, the *Siqidiaoshendalun* arranges its content rather simply.

Conclusions : The *Shanggutianzhenlun* needs to be converted into appropriate narrative terminology, while the *Siqidiaoshendalun* needs narrative supplementation using methods such as visual thinking and mind mapping.

Key words : Narrative, Shanggutianzhenlun(上古天真論), Siqidiaoshendalun(四氣調神大論)

* Corresponding Author : Kim Yong-jin,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62, Daehak-ro, Daejeon, Korea.

Tel: +82-42-280-2626. E-mail: omdkyj75@gmail.com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October 20, 2022), Revised(November 3, 2022), Accepted(November 3, 2022)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현대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서양의학에서는 敘事醫學(Narrative Medicine)이라는 범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황임경은 “사실 의학에 서사가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70년대 초반, 생의학에 기초한 현대의학의 폐해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으로 ‘문학과 의학(literature and medicine)’이라는 다학제적 학문 분야가 생기면서 의학에 서사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조앤 트러트먼 벅크스(J. T. Banks)가 문학 전공자로서는 최초로 펜실베이니아 주립 의과대학에 임용되면서 ‘문학과 의학’의 모습이 갖추어졌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들로는 헌터(K. M. Hunter), 샤론(R. Charon), 호킨스(A. M. Hawkins) 등이 있다. …… 문학과 의학을 통해 서사를 연구하던 학자들 이외에도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서사를 의학에 도입했던 여러분야의 학자들이 있는데, 철학·윤리학 분야에서는 브로디(H. Brody), 의료인류학 분야에서는 클라인만(A. Kleinmann)과 굿(B. Good), 의료사회학 분야에 서는 프랭크(A. Frank)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 영국에도 그린할(T. Greenhalgh)과 허위츠(B. Hurwitz)를 중심으로 서사 중심의 의학을 연구하는 그룹이 있다. 이들은 근거바탕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에 학문적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의료 인문학을 같이 연구하는 학자들로서, 1998년에 『서사 중심 의학(Narrative Based Medicine)』, 2004년에 『보건 의료 분야의 서사적 연구(Narrative Research in Health and Illness)』를 각각 출간하였다. 유럽의 연구자들 또한 미국의 연구자들과 비슷한 연구 경향을 보이나, 미국에 비해 의료인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서사를 이용하고 있다. …… 이들은 2001년부터 인터넷 웹사이트(<https://dipexinternational.org/>)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있다.”¹⁾라고 하여, 현대 의료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문학적 측면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의학에서의 敘事의 도이 비과정과 최근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다.

현재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에서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의학과 인문학의 결합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되어, 2005년 권상욱의 『의료 인문학의 개념과 의학 교육에서의 역할』²⁾, 2011년 황임경의 『의학과 서사』³⁾, 2018년 앨런 블리클리 지음, 김준혁 옮김의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의료인문학이 더 나은 의사를 만드는 방법』⁴⁾, 2020년 오승민, 김평만의 『전인적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인문학 교육』⁵⁾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연구가 되었고 교육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계에서는 김진아, 이성준의 『事例分析을 통한 『傷寒論』辨病診斷體系의 敘事醫學的價值的 探索』⁶⁾으로 한의학의 敘事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黃帝內經』을 研究하고 教育 및 普及하는 데 있어서는 敘事的인 관점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黃帝內經』의 敘事에서 黃帝와 岐伯의 問答式敘事로 구성된 「上古天眞論」과 단순하게 의학 이론을 나열하는 형식의 敘事로 구성된 「四氣調神大論」을 선택하여 각 편에 나타난 敘事에 대하여 『黃帝內經』의 서사 스타일, 담론 논리 등의 연구를 통하여, 『黃帝內經』을 현대에 맞는 형식으로 이해하고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본론

『黃帝內經』은 黃帝와 岐伯의 問答式敘事와 단순하게 의학이론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형식의 敘事로

1) 황임경. 의학과 서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8-10.

2) 권상욱. 의료 인문학의 개념과 의학 교육에서의 역할. 한국 의학교육. 17권 3호. 2005. pp.217-223.

3) 황임경. 의학과 서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4) 앨런 블리클리 지음, 김준혁 옮김.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의료인문학이 더 나은 의사를 만드는 방법. 서울. 학이시습. 2018.

5) 오승민, 김평만. 전인적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인문학 교육-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인간과학. 42호 2020. pp.143-167.

6) 김진아 이성준. 事例分析을 통한 『傷寒論』辨病診斷體系의 敘事醫學的價值的 探索. 大韓傷寒金匱醫學會誌. 2014;6(1).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敍事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 『黃帝內經』의 대표적인 서사 방식이 나타난 「上古天眞論」과 「四氣調神大論」으로 敍事に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敍事

敍事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⁷⁾에서는 이야기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이고, 서사는 “사실을 그대로 적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사학강의』에서는 “서사 혹은 내러티브는 인간의 행위와 사건을 상호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도식(schema)으로 경험을 의미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⁸⁾라고 하여 단순한 이야기에 대하여 서사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였다.

『서사론사전』에서는 “인간이 지어내는 모든 이야기를 말하는 敍事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건의 서술’을 의미한다. 학문적인 의미에서 ‘敍事’란 한 두 명 혹은 여러 명의 서술자(narrator)에 의해서, 한 두 명 혹은 여러 명의 듣는 이(narratee)에게 전하는 하나 내지 그 이상의 현실의, 혹은 虛構의 사건(event)의 보고를 말하며, 특히 이런 사건들의 결과와 경과, 관여자와 그 행위, 구조와 구조화의 보고를 말한다.”⁹⁾라고 하여 話者와 聽者 사이의 이야기라고 하였다.

황임경은 “서사(敍事, narrative)란 ‘현실 또는 허구 사건과 상황들을 하나의 시간 연속을 통해 표현하는 것’ 또는 ‘어느 쪽도 다른 한 쪽의 필수 전제이거나 당연한 귀결이 아닌 최소한 두 개의 현실 또

는 허구의 사건 및 상황들을, 하나의 시간 연속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서사는 ‘한두 명 혹은 여러 명의 듣는이에게 전하는 하나 내지 그 이상의 현실의 혹은 허구의 사건의 보고를 말하며, 특히 이런 사건들의 결과와 경과, 관여자와 그 행위, 구조와 구조화의 보고’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서사란 ‘시간에 연속대로 정돈해 놓은 사건의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사의 필수불가결한 두 가지 요건은 이야기의 내용(사건들의 시간적 연쇄)과 이야기 하는 역할을 하는 화자이다. 그리고 그것은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다시 이야기와 담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야기가 ‘누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말해준다면 담론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의미한다. …… 결국 서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사건을 이야기하고, 인물을 묘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추측하게 하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의미의 전달을 위해 은유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우연으로 가득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삶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하는 동반자이다.”¹⁰⁾라고 하여 敍事를 통하여 삶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과학을 아우르는 스토리텔링』에서는 “과학은 크게 연구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주요 요소로 나뉜다. 그런데 이 두 요소 모두 서사의 결핍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 과학 연구엔 딱 두 가지 결과만 존재한다. 뚜렷하거나(패턴이 보이는 경우) 그렇지 않거나(패턴이 안 보이는 경우). 뚜렷한 결과는 재밌는 스토리텔링과도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는 하품 나오는 지루한 스토리텔링과 같다. 누구나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하기 원한다. 지루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학술지도, 과학자도, 연구원도, 기자도, 모두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원한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는 자칫하면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 …… 그러면 서사가 어떤 정도로 존재해야 하는가? 지루함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는 혼란스러움을 두고, 그 사이 우리가 지향할 곳을 중간으로 하자.

7)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8) 우관제, 이소연, 박상익, 공성수 역, H. 포터 에밋. 『서사학 강의 -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 지성사. 2010. p.22.

9) 제럴드 프린스지움, 이기우 김용제 옮김. 서사론사전. 서울. 민지사. 1992. p.162.

10) 황임경. 의학과 서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17-18.

지루한 경우는 서사가 없는 경우이고, 혼란한 경우는 서사가 과도하면 일어난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많거나 서사가 없으면 자연 관심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서사가 적당히 있어야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에는 서사의 최적 수위가 존재한다.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 짜임새는 필요하지만,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한다.”¹¹⁾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과학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로 敍事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서사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서사를 잘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ABT양식’인 And(그리고) But(하지만) Therefore(그러므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오즈의 마법사』의 ‘캔자스의 농장에 사는 한 어린 소녀가 있다. 그리고(And) 그녀의 삶은 무료하다. 하지만(But) 어느날 토네이도가 그녀를 휩쓸어 신비한 나라 오즈로 데려간다. 그러므로(Therefore)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떠나야만 한다.’라는 문장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구조의 서사를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을 ‘간결함이 최고의 세련됨이다.’라는 제목으로 서사에 있어서 간결함을 강조하였다.”¹²⁾라고 하여 역동적이면서 간결한 敍事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黃帝內經』에서의 敍事

韓醫學 最高의 經典인 『黃帝內經』은 上古時代로부터 秦漢時代에 이르기까지의 이론과 임상을 종합적으로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제내경』의 전송 과정에서 각 시대의 의가들은 도교, 불교, 유교 등의 문화를 흡수하여 의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1) Text 문서

Text란 글로 쓰여진 의미의 형태로서, 말과는 달리 쓴 사람과 그것이 생산된 맥락을 넘어서 독립적

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엮어진 언어 기호의 복합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서사 텍스트(narrative text)는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기호로 표시한 글을 말한다. 『黃帝內經』의 서사 형식은 서사를 통해 표현되는데, 텍스트는 옛날 이야기 형식과, 黃帝와 신하들의 문답 등의 형식으로 기록되었으니, 『素問·上古天真論』에 “黃帝曰 昔在黃帝하사 生而神靈하며 弱而能言하고 幼而徇齊하며 長而敏敏하시니 成而登天하사 週問於天師曰 餘聞上古之人은” 이라고 하여 옛날에 黃帝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였고, 이어서 바로 岐伯에게 상고시대 사람들은 이라는 질문을 하여, 이야기 형식과 질문답변의 형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Story 이야기

Story란 일정한 즐거기가 있는 긴 말로, 신화나 전설 등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현실 생활에서 경험한 일을 새롭게 꾸며서 하는 말 등으로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집합을 말한다.

『黃帝內經』에서는 많은 부분이 問答형식으로 구성되어 의학 이론에 대한 story(이야기)가 주된 형식이 된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 “週問於天師曰 余가 聞건데 上古之人은 春秋皆度 百歲하야 而動作不衰어늘, 今時之人은 年半百하야 而動作皆衰者는 時世異耶오, 人將失之耶오. 岐伯이 對曰上古之人은 其知道者라 法於陰陽하야 和於術數하며 食飲有節하야 起居有常하야 不妄作勞하니, 故로 能形與神俱하야 而盡終其天年하야 度百歲乃去니이다.”라고 하여 黃帝와 그의 신하들인 岐伯, 伯高, 少師, 少俞, 鬼臾區, 雷公 등이 의학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여기에서는 옛사람들의 養生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養生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소개하였다. 즉 양생은 자연에 순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니 ‘法於陰陽’에서 法은 자연을 본받는 것을 말하고, ‘陰陽’은 만물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로 사물의 생성과 발전과 변화하는 근본 원리를 말하는

11) 랜디 올슨저, 윤용아 역. 과학을 아우르는 스토리텔링. 서울. 북스힐. 2020. p.19, 23, 24.

12) 랜디 올슨저, 윤용아 역. 과학을 아우르는 스토리텔링. 서울. 북스힐. 2020. p.29, 30, 46.

것이다. 이러한 양생을 잘하여야 만이 ‘形與神俱’로 형체와 인간의 정신 의식·사고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달하게 됨을 말하였다.

『素問·天元紀大論』에 “帝曰願聞五運之主時也하노니 何如이니고”, 『素問·陰陽離合論』에 “帝曰願聞三陰三陽之離合也하노이다. 岐伯이 曰聖人이 南面而立하시니, 前曰廣明이오” 등의 문장처럼 황제가 묻고 싶은 것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고, 신하들이 답변하였다. 이러한 story(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내용 파악을 수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診斷에 있어서도 story(이야기)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니, 관련되는 몇 가지 문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素問·移精變氣論』 “帝曰 余聞其要於夫子矣라 夫子言 不離色脈이라하니 此余之所知也라 岐伯曰 治之極於一이니이다 帝曰 何謂一잇가 岐伯曰 一者는 因得之니이다 帝曰 奈何잇가 岐伯曰 閉戶塞牖하야 繫之病者하고 數問其情하고 以從其意하니 得神者昌하고 失神者亡이니이다”

『靈樞·邪氣藏府病形』 “黃帝問於岐伯曰 余聞之하니 見其色하야 知其病을 命曰明이오 按其脈하야 知其病을 命曰神이오 問其病하야 知其處를 命曰工이라하니 余願聞見而知之하야 按而得之하야 問而極之하노니 爲之奈何오”

『素問·八正神明論』 “岐伯이 曰請言形컨데, 形乎形인저 目冥冥이로다 問其所病하야 索之於經하면 慧然在前이나 按之不得하야 不知其情하니 故曰 形이니이다.”

『素問·刺瘡』 “刺瘡者는 必先問其病之所先發者하야 先刺之니.”

『素問·徵四失論』 “診病에 不問其始와 憂患飲食之失節과 起居之過度하니, 或傷於毒한대 不先言此면 卒持寸口하야 何病能中이리오. 妄言作名하야 爲粗所窮하니, 此는 治之四失也니라.”

『素問·解精微論』 “若先言悲哀喜怒와 燥濕寒暑와 陰陽婦女하면 請問其所以然者며, 卑賤富貴는 人之形體所從이며, 群下通使하야 臨事以適道術은 謹聞命矣니이다.”

『素問·疏五過論』 “帝曰 凡未診病者는 必先問嘗貴後賤하야 …… 凡欲診病者는 必問飲食居處하고 暴寒暴苦하야 …… 診有三常하니 必問貴賤하야 封君敗傷하야 及欲侯王이라 …… 凡問診者는 必知始終이라”

『靈樞·師傳』 “夫治民與自治와 治彼與治此와 治大與治小는 未有逆而能治之也라”

이상의 문장들은 모두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환자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望聞問切의 四診法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위나 신분의 변화까지도 세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問診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와 의사가 듣는 이야기의 교감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된다. 問診은 『內經』에서도 강조되었지만 明代 張景岳의 『景岳全書』와 李梴의 『醫學入門』 등에서 問診을 강조하여, 그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었다.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인 疾病敍事와 의사가 듣는 이야기인 醫療敍事는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의사가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여야 하며, 아울러 환자가 말하는 사소한 사항도 질병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환자의 이야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여 명확하게 증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3. 『黃帝內經』에서의 敍事方式

敍事 방식으로 볼 때 『黃帝內經』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난다. 黃帝와 岐伯이라는 주인공과 伯高, 少師, 少俞, 鬼臾區, 雷公 등의 주변 인물들이 있고, 등장인물들이 의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적절한 敍事의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敍事が 『黃帝內經』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敍事에 있어 주인공과 문답식 서사에 대한 부분은 周潤澤 등의 敍事學視角下的『黃帝內經』思想的傳播與普及¹³⁾이라는 연구를 참고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13) 周潤澤의 3인. 敍事學視角下的《黃帝內經》思想的傳播與普及. 光明中醫. 2021. 第36卷 第12.

1) 叙事에 있어서의 주인공

叙事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叙事은 과정을 말하고 story(이야기)는 서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비교신화학자 Joseph John Campbell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¹⁴⁾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를 비교 분석하여 story(이야기)의 template(기본 模板)을 영웅의 혼란과 출발에서 영웅의 성공적인 귀환과 해결이라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이야기란 무엇인가’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Joseph John Campbell 스타일의 템플릿이 현대 영화 시나리오 제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래 그림은 영웅의 여정에 대한 도식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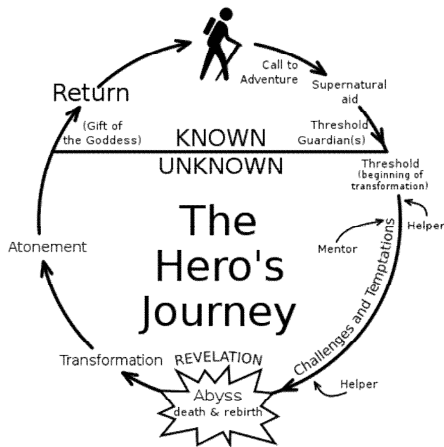


그림 1 영웅의 여정

『黃帝內經』 특히 『素問』에서의 서사 스타일은 ‘캠벨 템플릿’과 매우 밀접하다. 『素問·上古天真論』에 “昔在黃帝하샤 生而神靈하며 弱而能言하고 幼而徇齊하며 長而敦敏하샤니 成而登天하샤 迺問於天師曰余가 聞컨데 上古之人은 春秋皆度 百歲하야 而動作不衰어늘 今時之人은 年半百하야 而動作皆衰者는 時世異耶오 人將失之耶아”라고 하였으니, 이 서술은 주인공인 黃帝의 혼돈과 이탈(天師에게 묻다)의 내

용으로 캠벨의 템플릿에서 ‘영웅의 혼돈과 출발’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이후 黃帝가 제기한 의학적 질문에 대하여, 岐伯 등 신하들의 답변은 주인공인 黃帝가 의학을 배우는 과정을 묘사하는 ‘영웅의 성장’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素問』의 마지막 부분인 「著至教論」75편부터 「示從容論」76편, 「疏五過論」77편, 「徵四失論」78편, 「陰陽類論」79편, 「方盛衰論」80편, 「解精微論」81편까지에서 黃帝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雷公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雷公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으로 ‘영웅의 성공적인 귀환과 해결’의 단계라고 하겠다.

『素問』의 주요 내용은 黃帝라는 주인공의 성장 경험을 둘러싼 서사 활동이다. 이처럼 『黃帝內經』에서 黃帝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은 고대 사람들의 ‘托名取重’, ‘尊古賤今’사상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黃帝의 이미지가 서사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黃帝內經』을 story(이야기)로 만들고 흥미롭게 한다.

또한 『黃帝內經』은 다양한 사상이 혼합되어 있고, 한 사람이 만든 저작이 아니므로 『黃帝內經』이 전과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黃帝라는 주인공의 탄생은 『黃帝內經』 사상이 집대성되어 보급되어야 하는 필요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黃帝內經』 사상의 전파와 보급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의 진행되며 Covid19로 인하여 생긴 뉴노멀시대에 이르러서는, 신화 속 인물인 黃帝는 더 이상 권위와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의 독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敘事도 영향력이 적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黃帝內經』을 더 쉽게 이해하여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敘事に 맞게, 번역될 필요가 있다. 徐文兵의 『黃帝內經說什麼』¹⁶⁾에서는 중의사인 徐文兵이 친구인 梁冬과 함께 일상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黃帝內經』의 의학 이론에 대하여 이야

14) 조셉 캠벨 저,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서울. 민음사. 2018.

15) https://en.wikipedia.org/wiki/Hero%27s_journey

16) 徐文兵, 梁冬. 黄帝内经说什么(珍藏版套装, 全七册). 江西科学技术出版社. 2021.

기하였다. 梁冬은 자신의 건강이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중의사 친구인 徐文兵에게 상담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울러 『黃帝內經』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형식이다. 이로써 『黃帝內經』의 주인공과 서사적 분위기는 ‘고대’에서 ‘현재’로 바뀌면서 현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로 친근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黃帝內經』을 현대인의 시각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2) 敘事에서의 질문과 답변

문고 대답한다는 의미의 問答에 대하여 사전적인 의미로는 배우는 사람의 자기 활동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질문과 대답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문답식이라고 한다.

『黃帝內經』은 고대의 의학, 천문학, 지리, 기상학, 사회학, 철학 등 다양한 사상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서적이다. 여기에서 어떠한 토론거리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황제의 질문과 기백의 대답이라는 Q&A 형식의 서술 구조를 취하였다. 즉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학 이론을 설명하면, 독자의 생각을 통합하고 이야기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黃帝內經』의 서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게 된다.

問答式의 서사구조는 『黃帝內經』뿐만 아니라 동서양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방법이다. 이러한 問答式 서사구조에 대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혜연은 『홍대용 『醫山問答』의 글쓰기 방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답 구조 역시 새로운 과학 텍스트 논리 구조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의산문답』의 문답 구조는 크게 의도적 연쇄와 연상적 연쇄의 두 방식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데, 각각의 구성 방식은 하나의 과학 텍스트를 구성하는 새로운 논리 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의도적 연쇄의 경우 하나의 의도를 바탕으로 질문들이 조직 배열되며 이 경우 하나의 질문에서 바로 다음의 질문으로 넘어가는 논리보다는 해당 질문 연쇄를 관통하는 의도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때의 논리는 텍스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과학 텍스트의 구성 논리가 현상에 국한된 설명이나 인과 관계를 이루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 시간 혹은 공간순서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 점을 생각할 때, 하나의 의도를 중심으로 질문과 대답의 연쇄를 이루어나가는 이러한 의도적 연쇄의 문답 구조를 텍스트 구성의 새로운 논리 기반으로 추가해 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상적 연쇄도 마찬가지로 과학 텍스트로서의 하나의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연상적 연쇄 중에서도 나열적 연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때의 연상의 논리가 필연성에 의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 텍스트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건 중의 하나를 인과 관계에 찾아야 한다는 주장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구성 방식이다. 그러나 나열적 연쇄는 개별 현상들을 인과 관계로 쉽사리 묶어버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해석이나 전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 텍스트 구성의 또 하나의 방식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¹⁷⁾

김정은은 『「꽂지 닳 발 주둥이 닳 발」설화에 나타난 탐색과 문답의 서사원리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꽂지 닳 발 주둥이 닳 발」은 커다란 짐승이 어머니를 잡아먹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한다. 아이들은 먹여주던 어머니 없이 세상을 대면할 수 있을지 두렵고 불안하다. …… 다음으로 이 이야기의 순차구조인 문답형식은 이와같이 두려움과 분노를 주는 ‘꽂지 닳 발 주둥이 닳 발’을 탐색하게 한다. 문답형식을 통해 ‘꽂지 닳 발 주둥이 닳 발’을 탐색하는 과정은 아이들의 기지와 인내, 집념 등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다. …… 문답형식으로 자신 안에 두려움을 대면할 자질을 탐색하게 하는 서사원리를 통해 ‘꽂지 닳 발 주둥이 닳 발’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화두를 던지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 이와

17) 김혜연. 홍대용 『醫山問答』의 글쓰기 방식 : 과학 텍스트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와 실천 제76권 (2010. 6). pp.18-19.

같은 문답형식은 현대의 출판물에서 어머니를 잡아 먹는 잔혹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묻고 답하며 움직이는 것이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유희를 느끼게 하며, 두려움을 이길 자신의 숨은 가치를 함께 찾아가게 한다.”¹⁸⁾

『醫山問答』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洪大容이 1766년에 60일간 北京을 방문하고 귀국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사상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은 구비전승된 설화로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이라는 옛이야기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1996년에 서정오의 <옛이야기 보따리 시리즈>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¹⁹⁾.

『醫山問答』과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에서 모두 問答式의 敘事를 활용하면서, 그 내용을 더욱 명확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問答式의 저술이 계속 출판되고 있으니, 『과학과 신학의 대화 Q&A 창조와 진화, 인간의 기원에 관해 가장 궁금한 38가지 질문』²⁰⁾, 『뇌졸중(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²¹⁾ 등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서사의 형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3) 敘事 談論(discours)의 논리(logic) 연구

어떤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한다는 뜻인 談論(discours)은 논리적 체계를 갖춘 이론이나 주장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의 논리적 구조는 문장의 특수 구조를 나타낸다.

2015년 뉴햄프셔 대학교의 Randy Olson은 『과학을 아우르는 스토리텔링(Houston, We Have a

Narrative-Why Science Needs Story)』에서 내러티브에서의 다양한 담론 논리를 언급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의 스펙트럼은 AAA, ABT, DHY의 3가지로 구분하는데, AAA인 ‘and(그리고), and(그리고), and(그리고)’의 형태로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걷는다. 그리고 몇몇은 개를 데리고 있다. 그리고 해가 쨍쨍하다. 그리고 나무들이 있다.’라는 형식으로, 내러티브에 충동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루하게 만든다. ABT인 And(그리고), But(하지만), Therefore(그러므로)’의 형태로 오즈의 마법사를 예로 들면 ‘캔자스의 농장에 사는 어린 소녀가 있다. 그리고(and) 그녀의 삶은 무료하다. 하지만(but) 어느날 토네이도가 그녀를 휩쓸어 신비한 나라 오즈로 데려간다. 그러므로(therefore)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떠나야만 한다.’라는 형식으로 적절한 반전과 결과가 나타나는 최적의 서사형태이고, DHY인 ‘Despite(그런데도), However(할지라도), Yet(그렇지만)’의 형태로 ‘거기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들은 안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어.’와 같은 방식으로, 논리에 담긴 전환점이 많고, 이야기도 어수선히 혼란스러운 과잉서사이다.”²²⁾

여기에서는 내러티브는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거나, 너무 복잡하지도 않으며, 적절한 충동이 포함된 내러티브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한다.

『黃帝內經』에는 ‘AAA’와 ‘DHY’식의 논리가 많이 있고, 서사에 필요한 흥미진진한 ‘ABT’식의 논리가 부족하여 『黃帝內經』의 현대적 이해와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黃帝內經』의 해석 및 내용 파악에 있어서 현대적인 서사 논리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黃帝內經』의 담론 논리에 대하여 주인공의 이야기가 있고 문답식으로 구성된 「上古天真論」과 의학이론을 나열한 「四氣調神大論」으로 각각의 敘事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18) 김정은.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 설화에 나타난 탐색과 문답의 서사원리 연구. 韓國古典研究. 2017, 38호, pp.146-147.

19) 김정은.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 설화에 나타난 탐색과 문답의 서사원리 연구. 韓國古典研究. 2017, 38호, pp.126.

20) 바이오로그스, 우중학 저. 김영웅 역. 과학과 신학의 대화 Q&A 창조와 진화, 인간의 기원에 관해 가장 궁금한 38가지 질문. 서울. IVP출판사. 2022.

21) 한정희. 뇌졸중(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서울. 드림널스. 2022.

22) 랜디 올슨 저, 윤용아 역. 과학을 아우르는 스토리텔링. 서울. 북스힐. 2020. pp.120-146.

4. 「上古天真論」23)의 敍事

「上古天真論」 전체의 敍事は 黃帝와 岐伯이라는 두 주인공이 上古時代의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건강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하였고, 마지막에는 黃帝가 전체적인 요약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서사의 요소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昔在黃帝하샤 生而神靈하며 弱而能言하고 幼而徇齊하며 長而敦敏하시니, 成而登天하샤 酒問於天師曰余가 聞컨데 上古之人은 春秋皆度 百歲하야 而動作不衰어늘, 今時之人은 年半百하야 而動作皆衰者는 時世異耶오, 人將失之耶오.

岐伯이 對曰上古之人은 其知道者라 法於陰陽하야 和於術數하며 食飲有節하며 起居有常하야 不妄作勞하니, 故로 能形與神俱하야 而盡終其天年하야 度百歲乃去니이다. 今時之人은 不然也라 以酒爲漿하야 以妄爲常하며 醉以入房하야 以欲竭其精하야 以耗散其眞하며 不知持滿하고 不時御神하야 務快其心하며 逆於生樂하야 起居無節하니 故로 半百而衰也니이다. 夫上古聖人之敎下也에 皆謂之호대 虛邪賊風을 避之有時하고 恬憺虛無하야 眞氣從之하고 精神內守면 病安從來리오하니, 是以로 志閑而少欲하야 心安而不懼하며 形勞而不倦하야 氣從以順하며 各從其欲호되 皆得所願이니이다. 故로 美其食하며 任其服하며 樂其俗하며 高下不相慕하면 其民을 故로 曰朴이니, 是以로 嗜欲이 不能勞其目하며 淫邪가 不能惑其心하야 愚智賢不肖가 不懼於物하니 故로 合於道니이다. 所以能年이 皆度百歲하야 而動作不衰者는 以其德全不危也르새니이다.

첫 문단인 “昔在黃帝하샤 生而神靈하며 ……”에서는 黃帝의 출생부터 성장 및 최후에 대한 서술로 사실을 나열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AAA형식이라고 하겠지만 짧은 내용이므로 서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지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바로 上古之人과 今時之人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時世가 달라서 그런지 사람이 양생을 잘못하여 그런지에 대하여 물었다. 上古之人은 오래 살면서 건강한데 今時之人은 그렇지 못하다는 서사는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전자와 후자의 차이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러한 서사는 ABT형식이 간단하게 압축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岐伯이 上古之人과 今時之人의 양생의 차이가 있음을 단순히 나열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이어서 “虛邪賊風을 避之有時하고 恬憺虛無하야 眞氣從之하고 精神內守면 病安從來리오하니”라는 양생의 원칙과 생활 방식을 비교적 단순하게 나열하였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단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是以로’, ‘故로’, ‘所以’ 등의 글자를 사용하여 단순하게 나열하는 서사의 지루함을 없애고자 하였다. 고대 한문에서의 단순 나열적인 서사는 그 당시 문화의 특징적인 부분이므로 현대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고대의 漢文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是以로’, ‘故로’, ‘所以’ 등의 글자로 敍事の 순접(And) 또는 역접(But)의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하겠다.

帝曰人年老而無子者는 材力盡耶오 將天數然也오.

岐伯이 曰女子가 七歲엔 腎氣盛하야 齒更髮長하고, 二七에 而天癸至하야 任脈이 通하고 太衝脈이 盛하야 月事以時下하니 故로 有子오, 三七엔 腎氣平均하니 故로 眞牙生而長極하고, 四七엔 筋骨堅하며 髮長極하야 身體盛壯하고, 五七엔 陽明脈이 衰하니 面始焦하며 髮始墮하고, 六七엔 三陽脈이 衰於上하니 面皆焦하며 髮始白하고, 七七엔 任脈이 虛하며 太衝脈이 衰少하고 天癸竭하야 地道不通하니 故로 形壞而無子也일새니이다. 丈夫가 八歲엔 腎氣實하야 髮長齒更하고, 二八엔 腎氣盛하야 天癸至하니 精氣溢寫하며 陰陽和하니 故로 能有子오, 三八엔 腎氣平均하야 筋骨勁強하니 故로 眞牙生而長極하고,

23) 본문에 사용된 원문은 한의학교전 DB (<https://medicclassics.kr/books/162/volume/82>)에서 인용하였다.

四八엔 筋骨隆盛하야 肌肉滿壯하고, 五八엔 腎氣衰하야 髮墮齒槁하고, 六八엔 陽氣衰竭於上하니 面焦하며 髮鬢頽白하고, 七八엔 肝氣衰하니 筋不能動하고 天癸竭하야 精少하니 腎藏衰하야 形體皆極하고, 八八엔 則齒髮去하니이다. 腎者 主水하야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하니 故로 五臟盛하야 乃能寫어늘 今五臟皆衰하야 筋骨解墮하니 天癸盡矣라 故로 髮鬢白하고 身體重하며 行步不正而無子耳니이다.

이어서 “帝曰人年老而無子者는 材力盡耶오 將天數然也오.”라는 黃帝의 2번째 질문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將’이라는 글자는 ‘장수 장차 문득 혹은 오히려 어찌’ 등의 의미가 있는 글자로 ‘혹은’, ‘그렇지 않으면’ 정도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질문에 사용된 서사도 단순하게 나열하기 보다는 두 가지 반대되는 사항을 제시하여 단순한 서사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岐伯의 답변은 “女子가 七歲 …… 七七 …… 丈夫가 八歲 …… 八八 ……”이라고 하여 단순하게 女子와 丈夫의 나이에 따른 신체의 변화를 나열하여 AAA형식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에는 “腎者가 主水 …… 故로 …… 天癸盡矣라 故로 …… 行步不正而無子耳니이다.”라고 하여 ‘故로’라는 순접(And)의 서사와 ‘승’이라는 역접(But)의 서사를 고르게 활용하였다.

帝曰有其年已老어늘 而有子者는 何也오. 岐伯이 曰此는 其天壽過度하야 氣脈常通하야 而腎氣有餘也니, 此는 雖有子나 男不過盡八八하며 女不過盡七七하야 而天地之精氣가 皆竭矣니이다. 帝曰夫道者는 年皆百數나 能有子乎아. 岐伯이 曰夫道者는 能却老而全形하니 身年이 雖壽나 能生子也니이다.

黃帝의 세 번째 질문은 나이를 먹었는데도 자식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으로 질문하였고, 岐伯도 天地의 精氣가 고갈되면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黃帝의 마지막 질문은 양생을 잘한 사람은 나이

를 먹어 자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고, 岐伯도 양생을 잘 한 경우에는 나이를 먹어도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 문답과 마지막 문답은 모두 간단하여 서사적으로 무리가 없이 구성되었다.

黃帝曰余가 聞컨데 上古에 有眞人者하니 提挈天地하야 把握陰陽하고 呼吸精氣하며 獨立守神하야 肌肉若一이라 故로 能壽敝天地하야 無有終時라하니 此는 其道生이오, 中古之時엔 有至人者하니 淳德全道하야 和於陰陽하며 調於四時하고 去世離俗하야 積精全神하야 游行天地之間하며 視聽八遠之外라하니, 此는 蓋益其壽命而強者也니 亦歸於眞人이오, 其次有聖人者하니 處天地之和하며 從八風之理하야 適嗜欲於世俗之間호대 無患嘖之心하며 行不欲離於世하야 被服章호대 舉不欲觀於俗하며 外不勞形於事하고 內無思想之患하야 以恬愉爲務하며 以自得爲功하니 形體不敝하며 精神不散이라하니, 亦可以百數오, 其次有賢人者하니 法則天地하야 象似日月하며 辯列星辰하야 逆從陰陽하고 分別四時하니 將從上古하야 合同於道라하니, 亦可使益壽而有極時니이다.

「上古天真論」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上古에 有眞人者하니 …… 此는 其道生이라 中古之時엔 有至人者하니 …… 此는 蓋益其壽命而強者也니 亦歸於眞人이라 其次有聖人者하니 …… 亦可以百數라 其次有賢人者하니 …… 亦可使益壽而有極時니이다”라고 하여 단순하게 나열하는 AAA형식으로 양생에 대하여 종합 정리한 부분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내용에 대한 단순한 설명의 형식이므로 敘事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上古天真論」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요약을 하는 형식은 의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 수업에 있어서도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좋은 방법이 된다.

5. 「四氣調神大論」24)의 敍事

「四氣調神大論」에서 四는 四季節이고, 氣는 氣候氣象이니 四氣는 사계절의 氣候로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찬 것이다. 調는 調理 調攝이고, 神은 精神 情志를 말한다. 明·吳崑은 『素問吳注』에서 “言順於四時之氣하여 調攝精神하면 亦上醫治未病也라”고 하였고, 清·高士宗은 『素問直解』에서 “四氣調神者는 隨春夏秋冬四時之氣하여 調肝心脾肺腎五臟之神志也라”고 하여, 자연계에 순응하여 調攝精神情志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敍事的 측면에서 보면 「四氣調神大論」에서는 黃帝와 岐伯이라는 두 주인공의 問答式 구성이 아니라, 四季節의 상황에 따른 양생방법을 설명하는 AAA형식의 敍사로 구성되었다.

春三月은 此는 謂發陳이니, 天地俱生하여 萬物以榮하니, 夜臥早起하여 廣步於庭하고 被髮緩形하여 以使志生하며, 生而勿殺하며 予而勿奪하며 賞而勿罰하시니, 此는 春氣之應養生之道也니이다. 逆之則傷肝하여 夏爲寒變하니 奉長者가 少니이다. 夏三月은 此는 謂蕃秀니, 天地氣交하여 萬物華實하니 夜臥早起하여 無厭於日하고, 使志無怒하여 使華英成秀하며 使氣得泄하여 若所愛在外하시니, 此는 夏氣之應養長之道也니이다. 逆之則傷心하여 秋爲痠瘡하니 奉收者가 少하여 冬至重病하니이다. 秋三月은 此는 謂容平이니, 天氣以急하며 地氣以明이니, 早臥早起하여 與雞俱興하고 使志安寧하여 以緩秋刑하며, 收斂神氣하여 使秋氣平하며 無外其志하여 使肺氣清하시니, 此는 秋氣之應養收之道也니이다. 逆之則傷肺하여 冬爲飡瘧하니 奉藏者가 少니이다. 冬三月은 此는 謂閉藏이니, 水冰地坼하여 無擾乎陽이니, 早臥晚起하여 必待日光하고 使志若伏若匿하여 若有私意하며 若已有得하고, 去寒

就溫호대 無泄皮膚하여 使氣亟奪하시니, 此는 冬氣之應養藏之道也니이다. 逆之則傷腎하여 春爲痿厥하니 奉生者가 少니이다.

그러나 각각의 문단에서 보면 AAA형식의 敍事 뿐만 아니라 ABT형식의 敍事도 나타난다. “春三月은 此는 謂發陳이니, 天地俱生하여 萬物以榮하니, 夜臥早起하여 廣步於庭하고 被髮緩形하여 以使志生하며, 生而勿殺하며 予而勿奪하며 賞而勿罰하시니, 此는 春氣之應養生之道也니이다. 逆之則傷肝하여 夏爲寒變하니 奉長者가 少니이다.”에서 보듯이 주로 AAA형식의 敍事이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인 “逆之則傷肝(만약 이에 거역하면 肝을 손상시켜)”이라고 하여 역접(But)으로 서술하였고, 뒤를 이어 “夏爲寒變하니 奉長者가 少니이다”라고 하여 그러므로 (Therefore)의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나머지 부분도 이와 유사한 서술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AAA형식의 敍사이지만, 각각의 문단에서는 ABT형식의 敍사가 된다.

天氣는 清靜光明者也니 藏德不止라, 故로 不下也니이다. 天明則日月이 不明하여 邪害空竅하니, 陽氣者가 閉塞하고 地氣者가 冒明하여 雲霧不精하면 則上應白露不下하고 交通不表하여 萬物命故不施리니, 不施則名木多死니이다. 惡氣不發하여 風雨不節하고 白露不下하면 則冤稟不榮하고 賊風數至하며 暴雨數起하여 天地四時不相保하니 與道相失하면 則未央絕滅이니이다. 唯聖人從之라, 故로 身無奇病하며 萬物不失하니 生氣不竭이니이다. 逆春氣하면 則少陽不生하여 肝氣內變하고, 逆夏氣하면 則太陽不長하여 心氣內洞하고, 逆秋氣하면 則太陰不收하여 肺氣焦滿하고, 逆冬氣하면 則少陰不藏하여 腎氣獨沈이니이다. 夫四時陰陽者는 萬物之根本也니, 所以聖人이 春夏에 養陽하고 秋冬에 養陰하여 以從其根이시니, 故로 與萬物沈浮於生長之門하시니이다. 逆其根하면 則伐其本하여 壞其眞矣니이다. 故로 陰陽四時者는 萬物之終始也며 死生之本也니, 逆

24) 본문에 사용된 원문은 한의학교전 DB (<https://medicclassics.kr/books/162/volume/82>)에서 인용하였다.

之則災害生하고 從之則苛疾不起리니, 是謂得道
 니이다.

이 부분은 天氣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陽氣와 地氣가 정상이지 못하면 나타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하여 단순하게 나열하는 AAA의 구조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與道相失하면 則未央絶滅이니이다. 唯聖人從之라, 故로”라고 하여 天氣와 道가 서로의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與道相失則未央絶滅이지만 唯(오직 But) 聖人만이 天氣와 道를 순응하게 된다. 故(Therefore) 몸에 기이한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ABT 형식의 敍사가 된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夫四時陰陽者是 …… 所以聖人 이 …… 故로(Therefore) 與萬物沈浮於生長之門하시니이다. (But)逆其根하면 …… 故로(Therefore) 陰陽四時者是 …… (Therefore)逆之則災害生하고 …… 是謂得道니이다.”라고 하여 ‘故로’, ‘逆’, ‘故로’, ‘是’ 등으로 비록 ABT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혼란스러운 DHY의 형식이라고 하겠다.

道者是 聖人은 行之하고 愚者是 佩之니이다.
 從陰陽則生하고 逆之則死하며 從之則治하고 逆之則亂이니, 反順爲逆을 是謂內格이니이다. 是故로 聖人은 不治已病하고 治未病하며 不治已亂하고 治未亂이라하니 此之謂也니이다. 夫病已成而後에 藥之하며 亂已成而後에 治之가 譬猶渴而穿井하고 鬪而鑄兵이니 不亦晚乎잇가.

“道者是 …… 是謂內格이니이다.”에서는 道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道를 어기는 것을 內格이라고 한다고 하여 문장을 정리하는 형식이다. 이어서 바로 “是故로(Therefore) …… 此之謂也니이다.”라고하는 형식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마지막 부분은 “不亦晚乎잇가.”라고 하는 감탄 또는 의문의 형식의 서사로,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여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하여주는 방법이다.

Ⅲ. 맺는말

근래에 간호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평가원, 치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평가원이 출범하면서 의료계의 교육에 있어 역량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각각의 교육평가원에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여, 교육에 접목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과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과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인문학적 측면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인문사회학의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인문사회학의학과목은 의료윤리, 의학사, 의철학, 직업전문성, 서사의학 등 다양한 교과목으로 현대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교육에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이 되어야,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한의학 분야는 태생부터 이러한 敍事醫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黃帝內經』에 나타난 問答式 敍사는 아주 좋은 예가 된다. 다만 2,000년 이상의 시가니 흘러 『黃帝內經』의 敍사가 현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에 『黃帝內經』의 敍사가 잘 나타난 「上古天真論」과 서사적 구조가 어렵게 구성된 「四氣調神大論」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上古天真論」에서는 黃帝와 岐伯이라는 주인공들이 있고, 이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敍事構造를 이루고 있다. 다만 오래된 말투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등은 『黃帝內經』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黃帝內經』의 내용을 현 시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四氣調神大論」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敍事構造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단조로운 서사 구조에 대한 대응으로서, 마인드맵(mindmap), 비주얼씽킹(visual thinking) 등 현대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거나 단순 서사 구조를 새로운 서사 구조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黃帝內經』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黃帝內經』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 전달에서 현대적인 敍事 방법을 활용하여 수월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Reference

1. 권상욱. 의료 인문학의 개념과 의학 교육에서의 역할. 한국의학교육. 17권 3호. 2005. pp.217-223.
2. 김정은. 풍지 닷 발 주동이 닷 발 설화에 나타난 탐색과 문답의 서사원리 연구. 韓國古典研究. 2017, 38호, pp.126, 146-147.
<http://dx.doi.org/10.20516/classic.2017.38.117>
3. 김진아 이성준. 事例分析을 통한 『傷寒論』辨病診斷體系의 敍事醫學的 價値의 探索. 大韓傷寒金匱醫學會誌. 2014;6(1).
4. 김혜연. 홍대용 『醫山問答』의 글쓰기 방식 : 과학 텍스트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와 실천 제76권 (2010. 6). pp.18-19.
5. 랜디 올슨저, 윤용아 역. 과학을 아우르는 스토리텔링. 서울. 북스힐. 2020. p.19, 23, 24, 29, 30, 46, pp.120-146.
6. 바이오로그스, 우종학 저. 김영웅 역. 과학과 신학의 대화 Q&A 창조와 진화, 인간의 기원에 관해 가장 궁금한 38가지 질문. 서울. IVP출판사. 2022.
7. 徐文兵, 梁冬. 黃帝內經說什麼(珍藏版套裝, 全七冊). 江西科學技術出版社. 2021.
8. 앨런 블리클리 지음, 김준혁 옮김.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의료인문학이 더 나은 의사를 만드는 방법. 서울. 학이시습. 2018.
9. 오승민, 김평만. 전인적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인문학 교육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과학. 42호 2020. pp.143-167.
<https://doi.org/10.21738/JHS.2020.12.42.143>
10. 우찬제, 이소연, 박상익, 공성수 역,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 지성사. 2010. p.22.
11. 제럴드 프린스지음, 이기우 김용재 옮김. 서사론사전. 서울. 민지사. 1992. p.162.
12. 조셉 캠벨 저,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서울. 민음사. 2018.
13. 周潤澤의 3인. 敍事學視角下的《黃帝內經》思想的傳播與普及. 光明中醫. 2021. 第36卷第12.
14. 한정희. 뇌졸중(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서울. 드림널스. 2022.
15. 황임경. 의학과 서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8-10, 17-18.
16. https://en.wikipedia.org/wiki/Hero%27s_journey
17.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18. 한의학고전 DB
(<https://medicclassics.kr/books/162/volume/82>)